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유*현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파견기간	2017.08.28 ~ 2017.12.17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밴쿠버 남서쪽에 위치한다, 우리학교 건물 3~4개 정도의 규모이다, 모든 인종이 고루 분포한 다문화이다, 한국의 일반적인 전문대라 생각하였지만 공립College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쓰기 실력을 기반으로 분류한다고 생각한다.</p> <p>레벨5와 6를 수강하였는데 둘 다 오전반이었다.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니 레벨 3까진 오후반, 4는 둘 다, 5부터는 오전반만 있는 것 같다.</p> <p>세션 별 몇 가지 주제를 한 주제마다 1~2주에 걸쳐 읽기, 듣기, 쓰기를 고루 수학한다.</p> <p>레벨 5 - 매일 Assignment를 읽기, 듣기, 쓰기 골고루 내 줌. 가장 큰 과제는 포스터 조별 발표와 Essay paragraph 1개이다.</p> <p>레벨 6 - Assignment는 위와 동일하며 난이도가 전에 비해 비교적 높음. 가장 큰 과제는 PPT 조별 발표와 Essay 1편(Intro + 3body paragraphs + Con)이다.</p> <p>두 레벨 모두 반 친구들과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였으며 중간고사 반영비율이 높으나 그 동안 연습했던 Assignment를 기반으로 출제되므로 체감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된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LEAP은 유학생 중심의 수업이며 일부의 Domestic학생 또한 이민자가 대부분이다. 오리엔테이션 때 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므로 잘 챙겨 듣는 것이 좋다. 정규학생과 유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한국인 근로(?)를 하고 있는 정규학생이 있고 그 학생의 친구인 Korean club의 회장이 매우 사교적이고 친절한 학생이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Homestay office 직원 분들도 친절하고 학생의 편에 서주지만 문제가 있어 상담을 받을 때 문제만 이야기하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정확한 요구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10월부터 날씨가 좋지 않다는 앞서 다녀온 학생들의 수기를 참고하여 도착하자마자 밴쿠버 전역을 여행하였는데 거짓말처럼 10월 중순쯤부터 비가 아주 많이 쏟아져 다행이라 생각한다. 밴쿠버시민들은 우산을 쓰기보단 방수기능이 있는 바람막이 유형의 옷을 많이 입기에 현지인처럼 보이고 싶다면 참고.</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기대 이상, 상상 이상으로 안전한 편이다. 듣기론 캐나다는 공권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Homeless나 마약중독자들이 욕설이나 위협까진 하더라도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다운타운의 Gastown엔 주취자, 세로론 기억이 나질 않는데 가로론 Hastings St엔 Drug users가 많으니 낮에만 갈 것을 추천한다. 한국에 비해 캐나다는 가을에 접어들 무렵부터 해가 더 빨리 지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o)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에서 약 한 달 반을 지내고 남은 기간은 방을 렌트했다. 홈스테이를 할 때 가정집 3층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는 본인이 사용한 빈 방, 화장실이 있었다 가정집 3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한 층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렌트룸은 한인가족의 가정집에 남은 방 하나를 사용하였으며 부엌과 화장실은 가족들과 함께 썼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인건비와 팁 때문에 모든 식당이 비싼데 학교식당에선 햄버거집 우측에 파는 음식이 그나마 저렴했다. 외부식당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나 대표적으로 Oakridge 41st station에 위치한 mall에 있는 tugo sushi의 직원들이 학교 tugo sushi보다 훨씬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었다. 학교 tugo sushi는 항상 붐비고 바쁘며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불친절하다. 추가적으로 sushi samurai의 salmon사시미, 매트로 타운 쪽에 위치한 '태원'의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Chipotle'의 치폴레가 가장 인상 깊었다. 교내 팀홀튼이 7시(?)쯤 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등교시간에 매우 붐비므로 아침을 안 먹은 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서 더블더블이나 원 원 커피에 Old fashioned(?)를 제외한 Mixed tim-bit 10개를 시켜 먹었는데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한 달 97달러를 내고 Monthly pass를 이용하였다. 카드는 편의점에서 6달러를 내고 샀으며 추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나 급한 일정 때문에 해보진 못 했다. Monthly pass는 다음 달로 넘어가기 며칠 전부터 충전하면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항상 넘어가기 전 날 아무 Skytrain station에 가 미리 충전 후 사용하였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112,600원	출국 2달 전 지마켓을 통해 대한항공 티켓 구매 (출국 시 = 밴쿠버, 입국 시 = 샌프란시스코)
Fees	우리대학등록금만 납부	원래는 1세션당 약 2900달러 정도로 알고 있음.
보험료	191,900	출국 전 한화보험 중 가장 비싼 보험을 가입했으나 한 번도 안 아픔.
숙소	8.28 ~ 12.14 - 약 236만원	출국 전 2달치와 픽업서비스 1,814,595원 10월 14일부터 2달치 1100달러(당시 한화 기준 약 95만원) *10월 14일에 홈스테이를 나오며

		하루 27달러 기준 약 17일치를 환불받음(459달러 : 약 40만원)
식비	한 달 약 400달러	
교통비	한 달 97달러	
책값	-	레벨 5, 6 동안 교재구입 없음
기타1	139달러	CJ 항공택배 1박스
기타2	팁 포함 약 430달러로 기억	Bluebird Canada 로키산맥 3박 4일 투어
기타3	약 200달러	빅토리아 아일랜드 1박 2일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주류

캐나다는 알코올 규제가 굉장히 심하여 지정된 Liquor store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Liquor store보다 주에서 운영하는 BC Liquor store이 저렴하다. Liquor store나 Bar 혹은 식당에서 주류 구매 혹은 취음 시 ID카드 2가지가 필요한데 이 때 여권이 무적이니 필히 지참하고 2번째 ID카드는 여권에 명시된 것과 같은 성명만 적혀있으면 되나 가끔 까다로운 직원들은 이것저것 더 물어볼 때도 있다.

-국제학생증

국제학생증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다 학교포털을 통해 발급을 받아 갔는데 ID카드로 인정도 되지 않을뿐더러 캐나다생활 및 미국여행 중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기념이라 생각하고 하나 만들기엔 좋을 듯 하다.

-의류 및 생필품

캐나다는 Thrift Shop이라는 중고판매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나는 화장품이나 브랜드 의류 구매를 위해 49th ave, Victoria Dr에 있는 Value Village(중고판매점)와 Marine Drive station에 있는 Winners(이월상품 혹은 철 지난 새상품)를 자주 이용하였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교환학생을 위해 학업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왔기 때문인지 이번 교환학생은 내게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 막연하게 20여년간 영어공부 한 것 써봄과 동시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 꼭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보고 싶었다. 이에 교내 교환학생에 관심이 많았는데 1학기만 할 수 있어 초과학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캐나다가 있어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랑가라 컬리지 수기를 보니 1학기 동안 영어실력이 오르리란 기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적혀있었다. 물론 4달 남짓한 시간 동안 20여년 공부해도 못 하던 영어를 일취월장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은 정말 자신이 활용하기 나름이라 생각한다.

우선 설명에 앞서 캐나다는 나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아마 모든 레벨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주제가 캐나다일 것이다. 캐나다는 언뜻 보기엔 그냥 미국 위에 있는 좀 더 추운 미국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다르고 특히 Canadian 앞에서 캐나다를 미국과 비교했다간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닮은 듯 매우 다르다. 내가 가장 크게 느낀 특징으로 그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환경보호를 중요시한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언어장벽을 느낀 적은 있지만 인종차별을 당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다양한 인종이 골고루 섞여 있어 누가 누구 차별할 분위기가 아니다.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을 원주민이라 부를 때 그들은 1st Nation이라고 부르고 미국이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할 때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함과 동시에 소수민족 또한 그들의 언어를 공교육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사람들도 보면 몇몇 Canadian들을 제외하곤 정말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정도로 시민의식이 아주 좋았는데 예를 들어 운전할 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할 지라도 무조건! 멈춰준다. 만약 운전자가 타이밍을 놓쳐 그냥 지나갈 시엔 무조건 손을 흔들며 미안한 마음을 표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대중교통 이야길 하자면 버스에서도 사람들이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버스기사님 한 마디에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자리 양보하라 하면 양보한다. 한국에선 자리를 양보해줬을 때 당연하다는 듯, 아무 감사인사도 없이 냉큼 앉아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캐나다에선 축축한 눈망울과 함께 'Thank you'라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딱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 앞에 있던 사람이 내렸다 타지 않고 기둥에 딱 붙어 있다. 그럴 땐, 'I'm getting off!!!'이라고 크게 외쳐주고 가끔 버스기사님이 뒷문을 안 열어 주실 때가 있는데 이 땐 'Back door!!!'이라고 크게 외쳐주자. 더불어 Skytrain은 무인지하철이고 배차시간이 짧으니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버스나 지하철에 탈 땐 반드시 백팩을 벗어 바닥에 놓거나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Canadian은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은 선진문화를 커서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것 같다. 등교 첫날 정신 없는 나머지,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벗지 않고 있었더니 'Take your bag off'이란 말을 들어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다.

학교 수업에 있어서 다른 일반 대학이 아닌 어학교환학생에 온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처음엔 1년동안 일반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는데 막상 직접 가보니 그냥 영어로 말하기도 벅찬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들과 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기에선 특정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실망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학생들은 시험도 치르고 와야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고 그 중 몇몇 학생들은 이미 학사를 가진 상태에서 Master 과정을 밟기 위해 수학 중이었다.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그 학생들을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온 친구와 가장 친해졌는데 내가 오기 불과 4달 전 레벨 3에서 영어를 시작한 친구였다. 나이도 한참 어린 이 친구에게 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작문부터 회화, 문법까지 어느 것 하나 나보다 떨어진 게 없었는데 다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글을 쓰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매일매일 쉬는 시간도 빠짐없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져 있었고 2세션 모두 같은 반에서 같이 들으며 서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수기에서 친구들 덕분에 아주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 잘 안 믿고 의심 많던 특히 일본을 혐오하던 나에겐 먼 얘기라고 했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나의 모든 선입견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말 좋은 인생친구를 얻어간다.

여행은 대표적으로 빅토리아아일랜드, 시애틀, 로키산맥을 많이 가는데 내가 소개하고 싶은 곳은 Grouse Mt이다. 2학기에 갔기 때문에 원래는 세션이 끝나고 미국 여행가기 전 남는 1주일 동안 휘슬러에 가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변경된 일정과 휘슬러는 초보자가 가기엔 험난한 코스라는 말을 듣고 아쉬운 마음에 그로우스 마운틴으로 가기로 했다. 처음 타 본 스노우보드였는데 앞서 말한 친구에게 배워 정말 재미있게 즐기고 왔다. 그로우스 마운틴 나이트패스를 학생할인 포함 40~50달러에 끊었던 걸로 기억한다. 스노우보드를 포함한 모든 장구류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Rentaru store에서 렌트하였는데 처음 Gmap을 보고 찾아갔다가 엄청 헤맸다. 알고 보니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아주 조그만 가게에 위치하고 있었다. 장구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55달러 정도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헬멧은 대여하지 않아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당시에 이 가게에 한국인 직원이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 그만둔다고 했으니 이젠 없을 것이고 렌타루 하우스길래 사장님이 일본인이신 줄 알았는데 그냥 일본문화를 좋아하는 필리피노였다. 그로우스 마운틴까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다행히 자리가 많이 비어 눈치보지 않고 앞쪽 좌석에 앉아 갈 수 있었다. 튼튼한 쇼핑백에 모든 장구류를 넣어 들고 스노우보드는 그냥 들었는데 이게 할 짓이 못 된다. 정말 무겁다. 무겁다기 보단 들기가 힘들다. 만약 보드를 타고 싶은 학생은 미리 이 짐들을 메고 들만한 큰 가방이나 보드를 엮어 멜 수 있는 끈(?) 등을 가져오면 이동이 수월할 듯 하다. 아니면 미국여행 중 아주 편리하게 이용했던 Uber나 Lyft 등이 캐나다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면 돈 좀 더 내고 이용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짐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맡기는 곳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이용가능하다. 친구가 키를 잃어버려 애간장을 태우며 1시간 가량 스키장을 오르락내리락 찾았는데 직원이 아주 쿨하게 괜찮다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 스키장은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스노우보드를 처음 타보는 나에겐 충분한 높이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그런지

정상을 예쁘게 꾸며놓아 굳이 스키를 타지 않더라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캐나다를 즐기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추억을 쌓은 곳이라 기억에 남는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YMCA와 은행계좌이다. YMCA 정말 좋다. 회원 등록만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모두 할 수 있고 특히 다이어트하고 싶다면 가입비 아까워하지 말고 등록하길 권한다. 세션 1때 너무 여유가 없어 세션 2때 가입을 하려니 가입비가 아까워 1주일만 했는데 이 때가 마침 살이 빠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1주일만에 10키로가 넘게 빠졌고 이후에도 조금씩 더 빠졌다. 돈이 아까워 이후에 Main St에 있는 Sunset center(?)에 갔는데 어중간한 거리 때문에 운동을 사랑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잘 안 가게 된다. YMCA는 단순히 헬스장뿐만 아니라 매일 매시 다양한 프로그램(요가, 바디부스트, 싸이클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운동은 하기 싫은데 외국인도 보고 재미있게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은 YMCA에 가길 추천한다. 둘째로 은행계좌이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거스름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10원 단위까지 다 주질 않고 마음껏 내림하여 준다. 또한 팁문화가 아주 기본이라 현금을 낸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기 일쑤다. 내가 가있는 동안은 BMO bank에서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해 1년 동안 수수료가 면제되는 Debit카드를 제공한다고 하여 마침 Langara College 입학허가서(?)가 있어 학생임을 증명하고 1학기 동안 쓸 카드를 만들었다. (이후엔 수수료가 부과될지도 모르니 출국 며칠 전 카드를 계좌를 해약하였다.) 캐나다는 종이통장이 아닌 카드 자체가 계좌이며 온라인을 통해 Chequing계좌와 Saving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chequing은 입금/ 인출과 더불어 결제가 가능한 통장, Saving은 입금/ 인출만 가능한 통장이다. 때문에 난 환율이 낮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출 후(49th ave, Fraser st에서 몇 ave만 올라가면 Bmo bank가 있는데 그 은행이 가장 인출가능한도가 높았다) 쓸 돈만 Chequing에 넣어놓고 나머진 Saving에 넣어 나의 과소비를 막았고 카드를 쓰기 때문에 잔돈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참고로 Marine Dr에 위치한 Bmo bank에 한국인 직원 분이 2분 계시고 그 중 한 분께 이런저런 상담을 받았었는데 아주 친절하고 젠틀하시다.

생활에 있어선 실망감이 많았다. 처음 접해보는 서양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기에 올라온 그 날 그 날 새로운 양식.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주 교양 있게) 아침과 점심은 알아서 챙겨먹든 싸가든 하라고 하였고 가뜰이나 배고픈 와중에 저녁은 첫 날, 둘째 날 모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졌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날의 디너를 즐기는 것 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그 비싸고 맛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보면 신물이 난다. 그 후로도 아침, 점심 내내 배를 곯다가 부실한 저녁을 먹다 보니 사람이 우울해졌다. 하여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 상담을 하니 학생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었고 알고 보니 홈스테이맘은 유럽 출신의 Canadian이었는데 채식주의자라더라. 황당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닭고기를 먹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우선 해결책으로 장 볼 때 같이 가거나 요리를 직접 해서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하여 홈스테이맘과 대화를 통해 내 고민과 심정을 말했고 이로써 해결되는 줄만 알았다. 나도 이에 상응하여 장을 봐오면 같이 옮기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왔다.

하지만 며칠 뒤 정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대화 후 요리는 직접 해먹었는데 하루는 김치볶음밥을 했다.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녀분들이 먹고 싶다고 하였고 그녀도 흔쾌히 허락하였기에 요리를 하였는데 냄새를 맡더니 오물을 보듯 코를 부여잡으며 성가신 표정을 지었다. 냄새가 나면 냄새가 난다고 타박해줬더라면 차라리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이런 음식 안 하겠다고 했을 텐데 그렇게 쳐다보는 순간 내가 쓰레기를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럽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다. 또한 청소를 아주 귀찮아하여 가끔 청소하는 분을 불러 청소할 뿐 냉장고와 집안이 매우 지저분했다. 하여 그 후 또다시 상담을 받았는데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는지 홈스테이 오피스에서 중도퇴사를 시켜주었다. 근데 이 때 우리 학교 핑계를 대며 우리 학교를 통해 온 것이기 때문에 2달은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등 환불은 이 날부터 된다는 등 갑자기 말을 바꾸었는데 정확하게 입장을 제시하니 예정된 날짜에 퇴사하고 환불도 다 받았다. (참고로 퇴사는 1달 전 미리 고지해야 하고 캐나다 내 계좌가 있다면 더 용이하다.) 이후에 49th ave에 Rupert st에 있는 한인가정집에서 방하나를 빌려 생활하였는데 늑대만한 개가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뿐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생활하였다. 마지막에 몽둥이만한 꼬리를 흔들며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울어대던 프레디가 생각난다. 렌탈하우스에 대해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만큼 어렵진 않다. 여학생 같은 경우엔 홈스테이가 그나마 양호했지만 남학생이 이용했던 홈스테이는 정말 아니었다. 랑가라컬리지 홈페이지 내 홈스테이 안내에 보면 삼시세끼를 주게 되어있지만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고 같이 간 다른 학생은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만 하게 해주는 등 돈 주고 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나 싶었다. 퇴사는 홈스테이에 고지한 후 1달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바로 상담을 받고 바꾸던 퇴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우뎀유에서 렌탈하우스를 구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고 가격도 500~600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홈스테이에 말하기 눈치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막상 말해보면 굉장히 쿨하게 알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Canadian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첫 날 도착했을 때 나의 홈스테이맘이 여행에서 늦게 도착한다고 하여 임시로 다른 분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정작 귀국 전 마지막으로 찾아간 집은 그 분의 집이었다. 하루 밖에 지내지 않는 나에게 학교 시설이며 대중교통 이용법, 캐나다 가정 내 여러 가지 문화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중간에도 나를 식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나머지 귀국 전 찾아가 치즈닭갈비를 만들어드리고 같이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 또한 레귤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친구가 초대해 생일파티에 갔었는데 스페인계 현지인들과 맛있는 음식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파티다운 파티를 즐기고 와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가장 운이 좋았던 것은 우리학교에서 같이 온 학우들이었다. 다들 마음이 정말 잘 맞아 도착하자마자 다같이 밴쿠버 내 거의 모든 곳을 여행하고 2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 짧은 방학(?) 동안엔 새롭게 사귀어 외국인 친구도 함께 로키산맥에도 다녀왔다. 다들 영어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고 초반엔 쑥스러운 마음에 서로 한국말을 하였지만

나중엔 각자의 친구들 모두 다같이 친해져 함께 자연스레 영어로 대화를 했다. 초반엔 영어도 한국어도 못 하는 어중간한 시기, 중반엔 주말에 쓴 한국어 때문에 영어가 꼬이는 월요일, 후반엔 항상 생각하며 말해야 하는 영어가 아닌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한국어를 쓰고 싶은 마음 등 시기별로 달라져가는 고민이 있었는데 서로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소통하였기에 마지막까지 잘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Robson St, Downtown



Skytrain Expoline



North Vancouver에 갈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봤던 Sea bus. North에 가면
'Suspension bridge'나 'Deep Cove'에 간
후 매운 맛이 당길 때 남한산성이란
식당에 꼭 가보자.



리프트를 타고 올라 간 Grouse Mt 정상의
모습이다.



로키산맥에 올라가는 리프트.



첫 날 하루 묵은 홈스테이 집의 아들이 일을 하고 있어 갔던 Portland Craft라는 식당. 가격이 좀 있으나 Pub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Salmon Tartare, Lamb Meatballs 그리고 Put A Bird On It을 추천 받아 먹어봤는데 Salmon Tartare는 연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맛이다. 달달한 맥주는 'Lonetree', Draft beer는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추천해달라고 하면 취향에 따라 추천해줄 것이다.